테마칼럼 | 경제로 세상보기 | 대출로의 유혹 | 광고홍보 살피기 | 정보·문화 세상

어학의 경제성

김휘언

"광주시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광주를 어학 도시로 만든다면 미래 광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요즘 청년들에게 오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의 하나는 출신국가를 꼽을 것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 어학공부에서만 해방될 수 있어도 다섯 가지 복 중에서 하나를 갖게 될 듯싶다. 유명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어학공부에 소비하는 월 평균비용이 6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생 전체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들의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이 16%인 것을 감안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여기에 쏟을 노력과 비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이미 공용어가 되어있다. 국제무대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 실력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진학과 취업 그리고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젠 영어 학습과 활용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되어있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효율적 학습과 적절한 활용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영어만 되면 미래를 보장받고, 영어가 안 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쪼들리는 가계형편을 무시하고 연간 수천 만원 부담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보내야 하고, 심지어는 치안 상 위험을 무릅쓰고 미성년자들을 유학시키는 가정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해외로 지출되는 외화가 무역흑자규모와 비슷할 정도니 국가경제에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에 이러한 교육서비스 분야에 정부지출을 확대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외화절약효과와 많은 고용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4대 교육기관에서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선언하고 사교육비의 주범인 영어를 우선적으로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광주영어방송국이 개설되고 전남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영어교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각 교육시설 운용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면 교육품질도 충분히 올릴 수 있으며 대학과 연계하여 어학 시설과 기숙사를 활용할 경우 고급영어와 상당한 영어캠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외 어학연수가 문화와 상황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북미나 유럽의 배낭여행이 큰 비용을 쓰지 않고 어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역사지식 등에서도 많은 수확을 걷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어의 기본인 어휘력, 독해력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분야도 국내 수업을 잘 운영하면 해외 연수를 대체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학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영어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직업인들이 자기분야에서 쉽게 활용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광범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한다. 직업과 생활에 맞게 듣기, 말하기를 실용영어 위주로 편성하고, 심지어는 재래시장 아주머니도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실용문장 30개를 외울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성인교육은 이미 정보교육, 생활체육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는 비엔날레, 유니버시아드 유치, 아시아문화전당 등에 힘을 싣고 국제도시, 일등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도시는 이벤트성 사업보다도 꾸준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 달성되는 것이다. 외국인을 만나서 짧은 인사도 나눌 수 없고, 어색해서 상품판매기회까지 외면할 경우 국제도시의 꿈은 멀기만 하다.

이 기회에 광주시는 일등도시의 전략적 목표로 어학교육도시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광주시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광주를 어학 도시로 만든다면 미래 광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포대학 경영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지자체 자전거 타기 운동 성과 거두려면

최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다. '저탄소 도시'를 표방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타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매주 수요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정했으며 장흥군도 3일 '공직자 자전거 타기 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미래 녹색교통의 대안으로 떠오른 자전거 타기 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의욕만큼 자전거 타기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광주시의 제반상황을 들여다 보면 이런 의문이 쉽게 이해된다. 광주시의 전체 자전거 도로는 336.1㎞에 달하지만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개 구간 3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303.6㎞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 그냥 선만 그어 놓은 것이다. 지난달 20여 년 간 자전거로 출퇴근한 50대 교수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의 한 원인도 부실한 자전거 도로여건 때문이었다.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인도 가운데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곳곳이 끊겨 있는 상태다.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전거타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용도로 개설, 자전거 주차장 및 대여소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서 자전거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자전거 타기 운동은 헛구호일 뿐이다.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 함유됐다니

너무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 유아용품업체들의 베이비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어린이들을 발암물질이 함유된 파우더로 길러 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와 그 원료인 탈크를 수거, 검사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제품 등 30건 가운데 12건에서 석면이 나왔다. 그것도 대부분이 유명회사 제품들이다. 베이비파우더가 어떤 제품인가. 피부가 약하거나 목욕 후에 어린이들에게 수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느끼는 놀라움과 공포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흐른 후에 폐암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은 1987년부터 파우더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대해 엄격한 석면검사를 의무화했다. 유럽 등도 3~4년 전부터 탈크 속 석면을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에서 석면 검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함유량은 조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우더가 피부에 부착되거나 공기 중에 분산되기 때문에 흡입하는 양이 적어 유해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안전 불감증과 무지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유아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석면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탈크는 파우더 외에 화장품과 의약품에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해외 동향 파악에 소홀하고 부실한 관리를 한 식약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종교칼럼

박은식

로스앤젤레스에서 빛고을 까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orldbaseball classic)에 이어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의 기쁜 소식에 국민들이 시름에 웅크렸던 가슴을 펴고 마음을 말들을 쏟아내며 여기저기서 기뻐하였습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의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월드챔피언 소식은 현지의 교민들은 물론 전 세계 흩어져있는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사들에서는 19살 소녀의 우승이 가져올 국가브랜드 상승효과가 수 천 억 원대에서 수 조 원대에 이르는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연아의 브랜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요 글로벌 브랜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9살 소녀의 고백대로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서 지나온 길에서 홀로 겪었을 말 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면 짙은 숙연함이 찾아듭니다. 무대책이 상책인 채 결과를 누리기만 하는 얌체 같은 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이 감당해야 했을 그녀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피겨의 꽃이라고 말하는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기 위해 마치 물고기가 낚싯대 줄에 매달리듯 계속되는 끊임없는 연습과 계속되는 부상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 얼음판에 털썩 주저앉아 얼음판을 주먹으로 치며 흘리는 눈물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자리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또다시 그 힘든 훈련의 길을 다시 달릴 것입니다.

빛고을 충장로 금남로를 오가며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밀려가듯 지나가는 김연아 선수 또래의 청소년들을 볼 때면 늘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저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걸 수 있는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꿈을 가진 그들에게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한명 한명이 명품이 될 가능성을 그들의 가슴속에 묻고 있을 텐데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한 얼굴빛으로 떠밀려 지나가는 것만 같아 안타까움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핵심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품과 자기의 재능을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며 역사가 움직입니다. 빛고을 광주가 힘을 모아 세계의 빛이 되는 사람을 길러내는 요람이 될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광주서현교회 목사〉

기고

고해주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 안착돼야

국가는 국토와 인적자원으로 형성되며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주소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인간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로서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와 함께 관리되며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900년대초 우편·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용한 지적제도의 지번을 현재까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토지지번 주소표기 방식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 급증에 따른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토지의 잦은 분할과 합병으로 지번간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건물에는 상호나 건물명만을 표기함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위치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나 범죄, 119 구급신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제정 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을 기반으로 한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1997년부터 생활주소 개념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1년말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9천180여종의 모든 공적장부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된다.

광주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999년 사업을 착수하여 도로구간 설정(3천537구간), 도로명판 설치(7천167개), 건물번호판 설치(12만4천679개)와 도로명주소의 관리 및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명주소 체계가 완비되면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에 비해 위치 찾기가 훨씬 용이해지며, 화재나 범죄신고, 119구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이 감소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 광엑스포, 세계수소에너지 학술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내·외국인들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도로명주소'사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주소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 및 법규에 따른 고지·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매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無等鼓

코셔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 니라'는 구약성서의 구절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다. '염소 새끼'는 육류, '어미 젖'은 유제품, '삶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 즉, 부모와 자식 사이로 여겨지는 음식을 동시에 먹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유대인의 독특한 정결 음식법인 '코셔'는 그렇게 탄생했다. 유대인은 육류와 유제품을 담는 그릇도 철저하게 구분했다. 찬장도 따로 쓰고, 설거지도 따로 한다. 조금이라도 섞일까 봐 철저하게 살균하고 말린다. 이렇게 '먹을거리'의 존귀함을 생각하고 강박적일 정도로 청결에 신경 쓰는 것이 코셔다.

코셔에 따르면, 동물도 청정 사료를 먹여야 하며 자연사하거나 다른 동물과 싸우다가 죽으면 식용으로 할 수 없다. 어떤 동물이든 피는 완전하게 제거한 다음에야 먹는다. 유대인 사회에는 코셔 검사관이 있어, 음식자재부터 시작하여 생산시설, 조리과정 등이 합격 점수에 도달해야 코셔 인증마크를 붙여 준다.

최근 전 세계적인 웰빙 바람과 함께 코셔의 명성은 비유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코셔 마크만 붙으면 안심하고 먹으라는 의미로 통할 정도다. 또 코셔 인증 제품은 최고 50%까지 비싸게 팔린다.

현재 코셔 마크는 정통파 유대인 단체에서 인증해주는 'OU(Orthodox Union)'을 비롯, 800여 개 정도다. OU 마크는 세계 27만여 개 제품에 사용되고 68개국 6000여 개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코셔와 비슷한 HACCP 인증제도를 95년부터 도입 육류, 농산물 등에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코셔의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시장 바닥에서 음식물 전처리는 예사고 식당들의 위생도 그다지 철저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학교 식중독 사고는 단골 뉴스다.

날씨가 아직은 서늘하지만 방심이 자칫 화를 키울 수가 있다. 먹을거리 위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환기가 필요한 때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핸드폰 사업 설명회' 알고보니 '다단계 상술'

며칠 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와 전화가 연결됐다. 그 친구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잘되고 있다며 은근히 자랑을 했다. 친구는 한번 만나자며 날더러 사업 아이템을 보여준다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빌딩으로 나오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나는 며칠 후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가봤더니 그 안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이 와서 북적거렸다.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걸 생각해 그냥 조금 참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사업이라는걸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기네들은 소위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 정식적인 절차를 받은 업체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 후에 세미나가 있으니 그걸 꼭 들어보라고 말했다.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이런 사업제안과 소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들어보니 그동안 다단계 하는 사람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계급을 갖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과 친구, 친척, 직장동료를 소개해 오라는 말을 했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가는 가운데 주변의 친구, 아버지뻘, 어머니뻘, 할아버지, 할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용동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홍보 강화해야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한 전통식품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에서도 전통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는 물론이고 생산자들조차도 제도 시행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전통식품은 대개 한과류, 김치, 장류 등인데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37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일반 공산품을 평가할 때 KS라던가 혹은 Q마크, '품'자 마크 같은 걸 보고 품질을 믿거나 평가하는데 우리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거기다가 저질 중국산이 들어와 판치니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마저 함께 저질 취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단체급식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전통식품을 소비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즉 우리 농산물로 단체 급식을 하는 학교에 전통식품인증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놓고 학생들 스스로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 현·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72 정치부 2200-634 경제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사회2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육팀 2200-663 사진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